하나님이 하신 일

What God Has Done

로마서 8: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월 22일 설교

[1]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와 아쉬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도 평안하고 직장에서 일도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잘 다니고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도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렇게 늘 기쁘고 고마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내 삶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한 일을 돌이켜 보면, 그 때 화를 안 내도 되었을 텐데, 욕심을 안 부렸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을, 그 때 그 거짓말을 괜히 해 가지고 오늘까지 마음고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구랑 싸우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생각, 눈짓도 하고, 먹는 것 입는 것에 탐욕도 부렸지요. 하나님한테도 감사는 안 하고 불평했지요? 꼭 입으로 투덜거려야 불평입니까? 감사 안 하면 그게 불평이지요. 늘 기뻐하라 하셨는데 사는 게 별로 안 즐겁고 힘이 빠진 때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못 살고 대충 산 때도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한 주간 기도 못 한 날이 많았지요. 성경도 묵상 자료만 잔뜩 쌓아놓고 제대로 활용은 못 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그래, 바빴지. 맞아. 바쁜 이민생활 어디 가나?

오늘만 그렇습니까? 지난 주도 그랬지요. 다음 주도 그럴 겁니까? 우리 사는 게 왜 이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간단명료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 26:41). 마음의 원문은 영입니다. "영은 바라는데 육이 약하구나."

마음은 싸움판

예수 믿고 거듭 난 사람 속에는 두 자아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입니다. 영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성령과 통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곧 영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 생기기 전부터 또 다른 목숨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성, 그러니까 죄 짓기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죄 짓는 자아, 곧 육입니다. 육이니까 말 뜻은 몸이지만 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죄를 짓는 그 자아가 육입니다.

이 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영은 오른쪽 육은 왼쪽 그런 식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영도 육도 있지만 나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인 나 속에 영이 있고 육이 있어 이 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은 싸움터지요.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비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반드시 하나가 이기고 다른 건 집니다. 엎치락뒤치락 뒤집어지기도 하지요. 전쟁을 할 때 고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적군과 아군이 고지를 동시에 차지할 수는 없는 것처럼 내 마음도 영과 육 가운데 하나가 장악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답답하다, 늘 아쉽다, 무슨 말입니까? 영이 육에게 져서 육이 내 마음과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이 주도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영이 주도하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이니 하나님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육이 주도권을 장악하면 의심이 생기고 유혹이 오면 넘어갑니다. 감사도 못 하고 기쁨도 빼앗깁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도 서고 그러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영은 바라지요. 하지만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육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아쉽습니다.

육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건 쉽게 말해 내가 마귀의 졸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떤 청년이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가 악수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얼른 헌신해야지!” 하고 권했더니 이미 헌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 물었더니 귓속말로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하더랍니다. 무슨 특수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로는 주님의 군사라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한다면 마귀가 보낸 간첩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왠지 답답한 생활,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생활이고 얼른 청산해야 할 잘못된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증거

성령으로 살자. 그러자면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동서양의 지혜를 다 동원해야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지는 법이 없다. 손자가 말했지요? 동양의 지혜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이 말은 영국의 베이컨이 한 말인지 홉즈가 한 말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서양의 지혜지요.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동서양의 지혜를 다 모았는데 성경에 보니 이미 다 있습니다. 알아야 이기는 것 맞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첫째로, 답답한 마음, 찌뿌드드한 이 기분이 사실 감사의 제목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죽을 이유, 쥐구멍에 숨을 이유가 아니라 감사, 찬송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아쉽고, 화끈하게 살지 못하는 답답한 이 마음이 사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니까요. 답답한 것 다 풀고 화끈하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하지만 답답함조차 못 느끼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말이 좋아 살았지 사실은 죽어있는 그런 사람하고 비긴다면 답답한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복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니 답답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아쉬움조차 없는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니까요. 영원한 저주에 빠져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게 즐거워야 예수쟁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도 푹 쉬고 심지어 교회마저 멀리 해도 아무 부담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싸우지요? 마귀하고 직접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의 군사, 마귀의 졸개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끼리 싸워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이미 마귀를 무찌르셨습니다. 싸움을 끝내고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도 이깁니다. 모르면 지고 알면 이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마귀를 눌러 이기신 일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셨습니다 (마 12:29). 주님이 마귀를 붙잡아 묶으셨다는 말이 성경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결박하셨습니까? 결박은 묶어서 힘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유혹이지요? 유혹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유혹에 안 넘어간다면 마귀는 제 힘을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게 결박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안 넘어가고 이기셨습니다. 그 때 마귀는 졌습니다. 묶였습니다.

마귀가 우리 대장이신 주님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긴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덤빕니까? 똑같습니다. 유혹해 죄 짓게 만들고 율법을 갖다 대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이제 사형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기신 덕분에 우리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귀의 무기는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고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 많이 지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율법 갖다 대면서 너 죄 지었지? 너 예수 믿는 것 맞니? 그렇게 놀릴 때 우리는 그 율법은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효력이 없어, 하고 맞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알면 나도 이깁니다. 알아야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겼다는 걸 알기만 하면 됩니다.

간교한 마귀

마귀가 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물러설 마귀가 아니지요. 그렇게 쉽게 물러설 것 같으면 에덴동산의 비극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귀는 이미 항복해 놓고서도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괴롭힙니

다. 쉬지도 않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알아야 이긴다 했는데 마귀는 잘 압니다.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어땠다고요? 간교했습니다. 마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영혼을 빼앗는 건 못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는 내 것이다 하고 정하신 사람들, 그렇게 정해 놓으신 다음 독생자를 보내 그 독생자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마귀가 손 못 댑니다. 한 때 우리가 죄를 지어 마귀 편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엮어지고 난 다음에는 마귀가 절대 다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고 마치 마귀의 자녀인 것처럼 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감으로써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걸 마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못 살도록 하려고 발악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구원은 못 빼앗지만 구원의 확신은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영생은 확보했으니까 평생 죄 짓고 마귀한테 휘둘려도 나중에 천국에만 오면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목숨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뜻에 맞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단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전략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영과 육이 싸움을 벌이는데 육이 영을 눌러 이기게 합니다. 쉽게 말해 내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침체하게 만들고 싸울 엄두도 못 내게 만듭니다. 일단 조그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런 죄는 누구나 다 짓지요. 죄를 지으면 영이 약해집니다. 왜요? 죄 짓는 건 마귀와 한 편이 되는 거니까요. 마귀에게 지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겁니다. 믿음도 약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크든 작든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 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의심하다 보면 죄를 더 짓겠지요? 그러면 확신은 더 약해지고, 말씀도 기도도 아득한 옛날이 되어 버립니다.

악순환이지요. 죄가 죄책감을 낳고 죄책감은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고 확신이 약해지면서 죄는 더 짓고 죄를 더 지으니 하나님 사랑은 느끼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서 마귀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그대로 계십니다.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나와 교통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대신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하시지요. 마치 꺼져가는 불씨처럼 내 안에 조용히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약한 불씨지만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근심하시는 성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보는데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마귀의 손아귀를 못 벗어나 그렇습니다. 마귀는 못 이기는 방법으로 싸우게 만듭니다. 천국 다녀왔다 하는 사람 책을 읽는다든지 장풍 한다는 집회에 가는 건 방법이 아닌 줄 이제 다 아시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 마귀하고 직접 맞서 싸우다가 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죄가 문제가 되면 그 죄를 내가 내 힘으로 이겨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심지어 말씀과 기도로 하는데도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성경을 읽으려 하고 내 의지로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영의 일을 육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지요. 마귀가 꽉 누르면 그 힘이 좀 센 게 아닙니다.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지배를 받는 육을 그대로 가지고 싸우니 이길 수가 없지요. 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싸워야 이깁니다.

이기신 그리스도

동서양의 지혜를 짜 모은 결론이 뭐라고요? 알아야 이긴다. 동서양의 지혜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 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주 예수께서 이기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겨야지, 이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마귀를 무찔러 이기신 분이 바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분 휘하에 있는 군사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전투를 할 때 작전을 세우지요. 우리가 마귀의 졸개들하고 싸울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마귀의 군사들을 볼 때마

다 문서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무슨 문서겠습니까? 항복문서입니다. 마귀의 항복문서.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졸개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합니다. 말이 싸움이지 싸움이 끝났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거지요. 전문용어로 뭐라 합니까? 무장해제입니다.

항복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바로 마귀의 항복문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마 4:1; 막 1:12; 눅 4:1).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속하신 다음 우리 속에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와 싸울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의 졸개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승리를 시인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육으로 하면 왜 못 이깁니까? 마귀의 졸개는 자기들이 이미 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문서를 보여줄 때까지는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이거 마귀가 에덴동산에서 써먹던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하셨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위축되어 계실 때는 마귀도 딴청을 부립니다. 마귀가 육인데 육으로 싸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으로 하면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를 맛봅니다. 마귀는 항복하고 우리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전에는 안 되던 게 이제는 됩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사형을 선고하던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면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내 속에서 영과 육이 싸웁니다. 전에는 육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손잡을 수 있는 영입니다. 이 영이 이기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내일부터 한 주간 묵상하며 암송할 말씀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명령형입니다. 여기는 것은 마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냥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언뜻 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 경우 쓰는 말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불행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고 사과를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판단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라 하지 왜 죽은 걸로 "여기라" 했겠습니까? 현상만 보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결론이 안 나옵니다. 고개만 갸우뚱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려면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겨야 됩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현상만 갖고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요. 죄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아흔 아홉 가지를 잘 해 놓고도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아무리 잘 해도 죄를 한 번만 지으면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진 다음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한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와 싸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죄를 짓긴 지어도, 마귀 너한테 내가 져도, 정죄는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아시지요? 분명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정죄를 못 합니다. 주님도 정죄를 안 하겠다 하십니다. 그럼 죄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긴 지었는데 정죄가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 마틴 루터는 "담대하게 죄를 지으라" 했습니다.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죄를 지으라는 말이지요? 정말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가진 죄 사함의 특권이 놀랍고 또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죄를 지었다고 쥐구멍에 숨기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걸 이겨보려고 나 혼자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시작이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영과 육

영은 바라는데 몸이 약하다 하셨습니다. 죄만 생각하고 싸움만 생각하면 몸이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약해지고 집니다. 그러나 영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좋은 게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걸 알고 나니 죄를 이길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영은 바라는데 육이 약하니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성령의 인도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 속에도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8-39). (권수경 목사)